호남 전통燈 지켜 온 20년 예술혼

지역 불교人 장진익 전통등 작가

1996년부터 전통등 연구 매진
8년 전 고창에 작업실 설립해
광주 전남 등서 창작활동 펼쳐
'한국의 탈' 해외 순회전시 중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지로 만든 전통등을 연구 · 계승하고 있는 장진익 작가.

전통등(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작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인력과 인프라, 전시 환경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는 더욱 드물다. 호남을 중심으로 전통 한지등을 만들어 온 장진익 작가는 불교의 빛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려내는 작가다.

장 작가가 전통등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1996년부터 전통등 복원과 연구를 시작했던 선배 작가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등의 세계를 접했다. 전영일·백창호·인송자 등 홍익대·동국대 미술대학 출신 선배 작가들과의 교류는 그의 작업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당시만 해도 전통등을 아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깎는 일부터 직접 해야 했죠."

그는 2001년부터 대나무 골조를 만들고 한지를 입히는 전통등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열리던 전통등 강습과 전시에도 선배들과 함께 참여하며 현장을 통해 기술과 감각을 익혀갔다.

한지 조명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그는 전영일 공방에서 불교 전통등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장 작가는 전통등과 한지 조명을 아우르며 다양한 전시 무대를 경험했다. 원주 한지문화제 초대전을 비롯해 필룩스 조명 역사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상품 전시 등에서 한지등의 현대적 가능성을 선보였다.

이후 전영일 공방 소속으로 서울 연등회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불교 조형물 작업을 이어갔다. 그가 참여한 작업은 대형 봉축탑 제작부터 전통등 전시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석가탑·미륵사지석탑 봉축탑을 비롯해 청계천 전통등 전시, 봉은사·조계사 전통등 전시 등 수많은 현장을 거쳤다. 서울 연등회 공모전에서는 연속 2회 본상을 수상하며 초대 작가로 꾸준히 활동했고, 2014년에는 첫 개인전을 열었다.

약 8년 전 그는 서울을 떠나 지역으로 내려왔다. 현재는 전북 고창에 작업실을 두고 광주·전남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 대부분이 서울·경기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에는 거의 없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전통등 작업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가 전통등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그는 "전통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결국은 예뻐야 한다. 보는 사람도, 만드는 저 자신도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시선은 이제 세계로 향한다. 현재 폴란드 바르샤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한국 탈'을 소재로 한 한지 작업을 순회 전시 중이다. 우리 문화유산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앞으로는 민화, 설화, 한국적 서사를 한지등으로 풀어내는 작업도 구상 중이다.

"소재와 형식, 두 가지 모두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화엄사, 제6회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2월 27일~3월 29일
프로 · 휴대폰 부문

국가유산 천연기념물인 화엄사 홍매화를 주제로 한 사진 콘테스트가 올해도 열린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1일간 '꽃피는 순간, 꿈이 피어난다'를 주제로 제6회 '홍매화·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프로 전문가 부문과 휴대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2026년에 촬영한 홍매화·들매화 사진만 출품할 수 있다. 총상금 규모는 1000만원으로, 대상부터 각 부문별 수상까지 다양한 시상이 이뤄진다.

사진 출품은 화엄사 홈페이지 '홍매화 콘테스트'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개인·무허가·무보험 드론 촬영은 금지되며, 공익 목적의 촬영은 촬영 1주일 전까지 종무실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품작과 수상작의 저작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에 귀속되며, 개인 활용 시에는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

심사 결과는 4월 27일 오전 9시 화엄사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 오전 10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열린다. 홍매화 개화 상황은 화엄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라이브 캠을 통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간 중계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뇨엔, 창종 90주년 법요식 봉행

2월 8일 도쿄 응현원서



재단법인 신뇨엔이 창종 90주년을 맞아 2월 8일 일본 도쿄 총본산 응현원을 비롯한 전 세계 정사에서 기념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은 신뇨엔의 100년 미래를 향한 비전 선포와 함께 전 세계 신도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인터넷 중계를 통해 일본 내 109개 사원 등 해외 46개 사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이토 신소 원주는 기념사에서 "창종 100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세계의 종교를 목표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인도와 환희 △봉사 △접심(Sesshin) 등 세 가지 이타행을 제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어려운 이웃과 함께"…전국 사찰들 설 자비나눔

(사)붓다, 떡국 500인분 나눔
문빈정사, 자립준비청년 도와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자비행


사단법인 붓다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1일 지역 주민을 위한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도 자비행을 이어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사찰과 불교 단체들의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 마이산 탑사 회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을 위한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월 11일 붓다복지관에서 열린 떡국 나눔행사에서 약 500인분의 떡국이 지역 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에게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설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과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진 스님(상임이사, 천지사 주지)은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 곁을 지키는 자비행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공 스님)는 2월 9일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설 맞이 물품 꾸러미 지원식'을 열고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은 김미자 불자의 기부로 진행됐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말한다. 현재 광주 동구에는 자립준비청년 69명이 있으며, 이날 문빈정사는 이 가운데 40명에게 총 600만원 상당의 명절 꾸러미를 전달했다. 꾸러미에는 사과, 훈제오리, 돼지고기, 햇반, 라면, 떡국 밀키트, 미역국, 견과류, 수건, 물티슈, 세제, 문화상품권 등이 담겼다.

주지 법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역량을 함께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는 2월 11일 자비신행회 나눔공간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한 할아버지 스님의 응원의 설 선물' 전달식을 개최했다.

선물 꾸러미에는 떡국 밀키트와 소고기, 치킨, 과일, 라면 등 식료품을 비롯해 섬유유연제, 세제,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이 푸짐하게 담겼다. 정성껏 포장된 선물은 광주지역 5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일시보호소 등 총 6개 시설에 전달됐다.

도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떡국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끓여 먹으며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 형통사(주지 용담 스님)는 2월 10일 육화경당에서 대전 중구청에 쌀 6000kg을 기부했다. 기부된 쌀은 관내 149개 경로당에 전달됐다.

용담 스님은 "올해 설날에도 조금이나마 쌀을 나눌 수 있어 다행한 마음과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철원 심원사(주지 청현 스님)는 2월 6일 병오년 설을 맞아 철원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10kg 200포대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심원사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철원군은 이를 관내 6개 읍·면 저소득층 가구에 배부할 예정이다.

청현 스님은 "설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천태종 NGO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보광 스님)**는 1월 29일 원주시청을 방문해 30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원주 성문사에서 마련한 건강용품 등으로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장지환 성문사 신도회장, 진창호 나누며하나되기 사무처장 등 후원자와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 이동격 강원지사장

문경 불교계 "화합으로 희망찬 새해"

2월 7일, 신년하례법회 봉행



문경시불교연합회(회장 상오 스님)는 2월 7일 문경 온누리체육관에서 병오년 새해 맞이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안녕을 기원했다.〈사진〉

직지사 문장 황산 혜창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드라망 제망찰해(製網剎海)처럼 이 세상은 연결돼 있다. 모두가 서로를 살피며 고맙다고 느낄 때 그 사회는 더욱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불교연합회장 상오 스님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현승 스님, 묘안 스님, 명주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명순, 박영희, 황영숙, 문기원, 손정련 불자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선운사, 성원 대종사 44주기 추모재

2월 6일 대웅보전서 봉행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 운기당 성원 대종사의 44주기 추모재가 2월 6일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추모재에는 주지 경우 스님과 문도스님들, 본말사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도를 대표해 인사말을 한 대우 스님은 "은사스님의 44주기 추모재를 정성껏 준비한 경우 스님과 선운사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이날 성보박물관에서 불기 2570년(2026년) 1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연등회 '다시 꿈이 시작된다'

2월 6일 봉축위 회의 개최
2026년 봉축행사 본격 준비



불기 2570년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화평·경우·연수 스님)가 봉축행사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사진〉

2월 6일 전북불교회관 2층 강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연수 스님, 익산 관음사 덕림 스님, 남고사 석초 스님과 보문종·천태종·용화종 대표 스님을 비롯해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등 신도회 및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봉축위원회 구성, 봉축행사 계획안,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봉축위원장 화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자들의 동참으로 봉축행사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부처님의 뜻이 전북도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봉축 슬로건은 '다시 꿈이 시작된다, 꿈타는 연등회'로 정해졌다. 전북 봉축위원회는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를 봉축 기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다.

봉축의 서막은 4월 25일 전주역 마중길 분수대에서 열리는 봉축기원탑 점등법회로 오른다. 이어 전주 팔달로, 백제로, 혁신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송천동, 아중역, 팔복동 중앙분리대 등에 약 4000여 개의 거리연등과 LED 연등이 설치된다.

연등축제는 5월 16일 전라감영에서 봉축법요식을 시작으로 장엄불 점등과 함께 본격 개막된다. 이날 연등행렬은 전라감영을 출발해 한옥마을 주요 도로를 따라 다시 감영으로 돌아오는 약 2.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와 LED 연등 나눔도 펼쳐질 예정이다.

연등축제와 함께 '아미따유스 청소년 페스티벌'이 보컬, 댄스, 밴드, 국악 등으로 영역을 넓혀 청소년 참여를 확대한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봉축행사를 통해 전주 지역의 불교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선사 불교대학·대학원 졸업식

2월 7일, 121명 졸업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2월 7일 청풍루에서 '제31기 불교대학 및 대학원 졸업식'을 개최했다. 121명의 졸업생 및 수료자들은 수행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공부하고 실천하면 10년 수행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현재 건립 중인 선명상센터의 주인공으로서 졸업 후에도 정진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